

2026. 3. 31

해외동향부 (제 7419)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합의 실패하면 하르그삼발전소 폭파. 이란은 협상 참여 부인

- 연준 파월 의장,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적. 중동전쟁 영향은 아직 불확실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변화에 대응. 독일 3월 소비자물가 큰 폭 상승
- 일본은행 총재, 환율이 경제·물가에 큰 영향. 장기금리 안정 위해 노력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동전쟁 불안,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이 영향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3%],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 초반 상승했으나 확전 우려 부각 등으로 하락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저가매수 유입, 유틸리티 관련주 강세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유가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상승
유로화는 0.4% 하락, 엔화 가치는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발언 영향 등으로 하락
독일은 ECB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전망 후퇴 등으로 6bp 하락

※ 뉴욕 1M NDF 종가 1515.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516.8원, 0.08% 상승). 한국 CDS 상승

		3/30일	3/27일	전일대비			3/30일	3/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43.7	6,368.9	-0.39%	국채 금리 10y	미국	4.35%	4.43%	-8bp
	유럽	580.73	575.30	+0.94%		독일	3.04%	3.09%	-6bp
	중국	3,923.3	3,913.7	+0.24%		영국	4.94%	4.97%	-4bp
	일본	51,886	53,373	-2.79%	CDS 5y	한국	36bp	35bp	+1bp
	한국	5,277.3	5,438.9	-2.97%		중국	55bp	54bp	+1bp
환율	달러지수	100.50	100.15	+0.34%	위험 지표	EMBI+	-	292	-
	유로화	1.1465	1.1509	-0.38%		VIX	30.61	31.05	-1.42%
	엔화	159.71	160.31	+0.38%		WTI유	102.88	99.64	+3.25%
	위안화	6.9125	6.9112	-0.02%	원자재	구리	550.2	546.7	+0.64%
	원화	1,515.7	1,508.9	-0.45%		금	4,510.9	4,494.1	+0.3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합의 실패하면 하르그섬·발전소 폭파. 이란은 협상 참여 부인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정권과 논의 중인데,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특히 이란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모든 발전소, 유정, 하르그섬을 파괴시키겠다고 경고. 이는 별도의 휴전 없이 일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의미
- 다만 전용기에서 이뤄진 약식 회견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꽤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이란이 미국에서 제시한 15개 요구 사항에 대부분 동의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 20척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히며, 협상의 진전을 강조
- 이란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꽤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현 단계에서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첨언. FT와의 인터뷰에서는 선호하는 선택지는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에너지 자원 확보 의지를 노골적으로 피력. 로이터에 따르면, 미군 82 공수사단과 수천 명의 병사가 중동지역에 배치
- 베센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늘고 있으며, 이에 석유시장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이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미국 측에 전하는 내용은 다르다고 언급.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국가들이 이번 이란 작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첨언
- 파키스탄의 이스하크 다르 외무장관은 며칠 이내에 미국과 이란 간 의미 있는 대화를 갖도록 중재하여 기쁘다고 발언. 하지만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발언.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논의 중일 뿐이라고 지적. 또한 미국의 지상 침입 시도는 재앙적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
- 한편, 이날 이란은 이스라엘 남부 산업단지, 쿠웨이트 전력 및 담수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 IMF는 중동전쟁이 당사국과 주변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파월 의장,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적. 중동전쟁 영향은 아직 불확실

○ 파월 의장은 하버드대학 행사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이며, 현재의 정책은 상황을 살펴보니 적절한 수준이라고 언급.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했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물가안정과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금리조정에 대해서 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첨언

■ Morgan Stanley, 글로벌 증시 투자의견 하향. Goldman Sachs는 비트코인 상승 예상

○ Morgan Stanley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 투자의견을 하향(비중확대→중립). 미국 국채와 달러화는 상향(중립→비중확대). Goldman Sachs는 비트코인이 그 동안 거래량 저점을 확인한 후 3개월 뒤에 상승했는데, 최근 거래량이 급감했다면서 이번에도 3개월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

■ ECB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변화에 대응. 독일 3월 소비자물가 큰 폭 상승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드 갈로 위원은 금리인상 시기 논의는 이르지만,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 스투나라스 위원도 인플레이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독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8% 올라 전월(2.0%) 대비 큰 폭 상승. 일부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향후 3.0%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ZEW)

■ 일본은행 총재, 환율이 경제·물가에 큰 영향. 장기금리 안정 위해 노력할 방침

○ 우에다 총재는 경제 및 물가 관련 위험을 판단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발언. 다만, 과거에 비해 환율이 경제 및 물가에 쉽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 한편,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장기금리가 상승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3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연준 보우먼 이사·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 발언, 2월 JOLTS 구인건수
-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 중국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동發 인플레이션 충격, 제한적인 파급 분야로 '22~'23년보다 작은 편 - 블룸버그

(Why the Iran War Doesn't Mean a Covid-Scale Inflation Shock)

- 최근 유가 충격으로 일부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항공, 플라스틱, 배송 등 다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급등. 하지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은 팬데믹 이후인 '22년보다 작을 소지. 당시 물가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급등했지만, 이번에는 에너지 및 운송 관련 분야에 집중되기 때문
- 아울러, 지금은 팬데믹 이후와 비교하여 경제 성장률이 낮고, 고용도 부진하며, 재정부양책도 부족.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2차 인플레이션 효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물가상승 압력 높아질 전망(Oxford Economics)

■ 글로벌 금융시장, 중동전쟁 관련하여 TACO보다 WACO 가능성에 초점 - 블룸버그

(Will the Ayatollahs Chicken Out Is the New TACO)

- 그 동안 투자자들은 트럼프 발언에 초점을 두고 중동전쟁 조기 종전에 집중. 그러나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국제유가 안정의 핵심. 이에 시장은 TACO보다는 WACO(Will the Ayatollahs Chicken Out? 이란이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인가?)에 관심
- 다만 이란은 정권 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트럼프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어 이번 전쟁에서 먼저 물러날 가능성은 적은 편.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 결국 미국의 지상군 투입 없이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기는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

■ 석유 시장, 공급 부족에서 점진적으로 수요 파괴 국면으로 이동 - 블룸버그

(The Oil Market Is Moving Into Demand Destruction Mode)

- 중동전쟁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세계적인 석유 부족 현상이 발생. 하지만 각국이 공급 증가, 우회로 확대 등의 대책을 가동하면서 유가는 과거 오일 쇼크 시기보다 낮은 수준.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면 극단적 방어책인 '수요 파괴 모드(Demand Destruction Mode)' 돌입이 불가피
- 현재 일부 국가에서 석유 사용 감축을 강제하며 수요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노력 역시 한계점에 노출될 가능성. 이후에는 결국 유가 급등이 기업과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우려. 이후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위기가 전이 될 소지

■ **이란, 전쟁 이후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로 부상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Iran could emerge from the war stronger and more dangerous)

-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지렛대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역설적 재능을 소유. 실제로 중국이 희토류 지배력을 활용한 사례에 이어 이란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서방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확인
- 이란의 지리적 이점과 드론 등 비대칭 전력 때문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 결국 협상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지렛대로 높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
- 걸프 주변국과 아시아유럽의 석유 수입국들은 이란의 영향력 확대와 해협 통제를 우려하면서도 직접 충돌 회피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통행료 지불을 고려할 소지. 이란이 전쟁 이후 더욱 대담해진다면 세계 경제·안보에 큰 위협이 될 전망

■ **미국 단기금리, 경제 펀더멘털 등을 고려 시 과도하게 높은 수준 - Financial Times**

(Short rates have overshot)

■ **채권투자자의 관심,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에서 성장 둔화로 이동 - 블룸버그**

(Bond Investors Suddenly Are More Focused on Growth Than Inflation)

■ **미국의 견조한 소비, 비정규직 의존 증가 등으로 지속성에 의문 - Financial Times**

(America's gig economy)

■ **유로화 가치, 유가 충격·경제 전망 악화로 '24년 이후 최악의 분기 직면 - 블룸버그**

(Euro Poised for Worst Quarter Since 2024 as Oil Shock Bites)

■ **최근 금 가격, 투기적 거래 및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변동성 확대 - The Economist**

(After Iran, gold is looking less glitter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